'화이' 나쁜 아빠 김윤석

배상문 40개월만에 우승샷

"집값 바닥…혜택 많은 지금 살때"

전문가 3인이 전망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세난은 단기적 해결 힘들어"

'아파트 거래 대폭 늘고, 강남 재건축도 1억원씩 올랐다면… 지금이 집 살 때?'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전세 세입자 일부가 매매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3300여 건으로 지난달보다 20% 늘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올 초에 비해 모든 면적대가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집값 바닥론'과 함께 '연내 집을 구입하라'는 주문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연 지금이 집을 살 타이밍인지 아니면 이대로 전세나 월세로 주저앉아야 할지 감이 안 온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인터뷰에는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 팀장과 부동산써브 정태희 부동산연구팀 팀장,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센터 팀장이 참여했다.

3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연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라'고 강조했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이미 주택 가격이 바닥을 쳤다"고 봤다.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으로 권 팀장은 내다봤다.

그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올 하반기가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 생

왼쪽부터 닥터아파트 권일, 부동산써브 정태희,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 /손진영기자 son@

각한다"면서 "물론 1만 원과 부분이 변수이긴 하지만 지연이 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부동산연구팀장도 "지금 대출금리가 4% 미만인데 이런 금리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리가 많이 내려간 게 2%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정 팀장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 가진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선입견은 버려야 한다"면서 "자동차도 중고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주택 역시 하락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 역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이고, 양도세도 5년간 면제된다"며 "이는 과거에 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따라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들은 올 하반기를 노려봐 만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집은 사든 저가 매수 쪽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사는 집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면서 "지금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는데 대략 20~30% 떨어졌다 어떤 매물은 많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추석 이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권일 팀장은 "8·28 대책이 나온 이후 심리적으로 가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분위기"라며 "매수자들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은진 팀장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위례와 마곡지구 등 굵직한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다"며 "취득세와 양도세가 올 연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연내 많은 수요자들이 부동산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난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태희 팀장은 "전세난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지금 전세난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2~4년 사이에 반복되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 때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전세난은 반복되고 있고, 전셋값은 계속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12면에 계속>

/윤선희기자 sunlight@metroseoul.co.kr

대장균서 가솔린 생산 카이스트 세계 첫 성공

대장균에서 직접 가솔린(휘발유)을 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 연구팀은 29일 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해 원하는 형태의 화학물을 대량생산하는 기술인 '대사공학'을 이용해 대장균의 지방산 대사회로를 '석유공장'으로 바꿔 놓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30일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네이처(Nature) 온라인판에 실렸다.

대장균의 먹이인 포도당은 옥수수, 나무 등 '바이오매스'(생물 에너지원)에서 추출했다. 바이오매스는 이산화탄소와 태양빛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자원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의 관건은 가솔린처럼 사슬길이가 짧은 알케인(Alkane·사슬형태 탄화수소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다. 가솔린은 4~12개의 탄소로 이뤄진 알케인이다. 2010년 미국에서 미생물로 알케인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한 바 있지만, 이 알케인은 탄소 사슬의 길이가 13~17개인 바이오 디젤에 해당됐다.

연구팀은 지방산 길이를 원하는 목적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효소를 새로 발견하고, 개량된 요소를 대장균에 적용해 미생물에서는 생산하기 어려운 짧은 길이의 지방산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김민준기자 mikin@

장깐만 / 메트로 포토 캠페인

"의자 없는 그 자리, 휠체어 자리인 건 아시죠?" 지하철을 타면 의자 없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휠체어를 위한 공간으로 제작된 휠체어 전용석이다. 휠체어가 없을 때는 유모차가 서기도 한다. 이 곳간에 서 있다가도 휠체어가 들어오면 바로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서울메트로 제공

<기초노령>

"미래세대 연금푸어 아냐"

靑 '국민연금 장기가입 손해' 반박 회견 · 진영 장관은 "사퇴" 재확인

29일 사의 표시를 지고 방한 진영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 시 손해 주장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반박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반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모두 나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돼 있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과 관련해 끝내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것에 여러 번 반대했고,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다"며 "절대 복귀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해명에도 기초연금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청년층 누른 황혼취업

55세 이상 95만명 넘어서
노년 이혼 20년새 11배로

서울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5060세대는 은퇴도 황혼도 없는 우울한 자화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취업자는 2000년 54만5000명에서 지난해 95만6000명으로 41만1000명(75.4%) 증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00년 129만4000명에서 지난해 90만3000명으로 39만1000명(30.2%)이 줄어들어 55세 이상 취업자보다 수가 적어졌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경제활동인구도 2000년 11만8000명에서 지난해 25만8000명으로 12년 새 2.2배 증가했다.

노년층의 이혼도 급증했다. 65세 이상 이혼은 20년 새 11배 이상 늘었다. 남성 노인의 이혼은 1992년 119건에서 1156건으로, 여성 노인의 이혼은 30건에서 500건으로 증가했다.

2005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서울은 2027년이면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트 [illegible]기자

부산 민심투어 나선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을 방문, 한 아기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원평가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두 달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료 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전 학년, 학생 만족도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에서 실시된다.

이번 평가부터 교원들은 학생·학부모가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기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 학부모가 평소 자녀와 대화나 관찰만으로도 답할 수 있도록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문항이 쉽게 바뀌었다.

학생들은 평가하기 전 평가의 취지·목적, 문항의 의미, 결과 활용 등에 대해 교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한다. 동료 교원 평가에서 교사는 평가에 앞서 반드시 평가 대상 교사의 공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평가 결과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교원은 능력향상연수를, 보통 교원은 평가 지표별로 맞춤형 연수를 받는다. 우수 교원은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받는다. /최광 [illegible]기자

돌아온 '손' 화성갑 흔들까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10월 재보선을 한 달여 앞둔 29일 8개월간의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손 고문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10월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당과 민주정치가 저를 필요로 할 때 어느 때든 제 몸을 사리지 않고 던져왔다"며 "그러나 과연 지금이 그때인지는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화성갑 보선에 새누리당에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항마로서 경기지사를 지낸 손학규 차출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손 고문의 한 측근은 "당에서 아무런 말도 없는데 먼저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당이 강하게 삼고초려한다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해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서울 페스티벌 '깜찍한 홍보 댄스' 하이서울 페스티벌 자원봉사자들이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의 바다'에 빠진 침수 예산

서울시가 올해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침수 대책 시설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사업은 완공 시기까지 조정했다. 복지 확대 여파에 따른 예산 부족 때문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15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90억원의 예산이 삭감됐고, 관공 시기는 2016년 5월로 미뤄졌다.

2015년 완공 목표인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 용량 확충 사업도 올해 67억원이었던 예산이 38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50억원을 들여 정비할 예정이었던 사당역 일대 배수시설 개선 사업도 25억원이 줄었다. /김유리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성철

영원한 청년 제임스 딘 사망

1955년 9월 30일 생애 단 3편의 영화만으로 청춘의 우상이 됐던 제임스 딘이 사망했다. 그는 불우하게 보낸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배우의 꿈을 꾸며 입성한 할리우드에서 6년 가까이 단역 배우로 전전했으나 1954년 영화 '에덴의 동쪽'에서 주인공으로 발탁돼 섬세하고 날카로운 반항 연기를 선보였다. 무뚝뚝하고 반항적인 눈빛 연기는 이어진 영화 '이유없는 반항'으로 극대화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듬해 피어 안젤리와의 사랑이 실패로 끝난 후 자신의 세 번째 영화인 '자이언트'의 개봉을 앞두고 스포츠카를 과속으로 몰다 사고를 일으켜 불꽃 같은 생을 마감했다.

여행 취소 언제든지 가능

'망신주기 채권추심 금지' 등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해야 유효하고,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9일 보증인 보호와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 주기 채권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는 앞으로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 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섰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채·대부업자 등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줘야 한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 상실 외에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으로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 '인정사정 없는' 채권 추심 또한 금지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캠퍼스 이모저모

경성대 '제2기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맞춤 인력 배출 부산경성대학교(총장 이덕근)는 지난 26일 조리관 콘서트홀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인 제2기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고용노동부와 연제구(구청장 이위준)가 주관하고 부산경성대학교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약 체결 국비 후원 사용하는 이번 과정은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교육으로 법률 관련 기관 등의 전문 인력 배출에 기여했다.

부산과기대 '제1기 문화예술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식 부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기섭)는 지난 25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제1기 문화예술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1년간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수준 높은 문화 예술 정보를 공유하며 창조적 경영능력 함양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유명 강사 및 전문가가 강의를 맡는다.

한국폴리텍 '동남권 대학생 CAM경진대회' 금상 수상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학장 도재윤)는 지난 14일에 열린 '동남권 대학생 CAM기술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대회는 부산·경남권 소재 5개 대학 총 37개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김경환(금형디자인과 2학년) 학생이 대회 최고 영예인 금상에 입상, 부산광역시장상 및 상금 50만원을 함께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청렴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지사장 김정선)는 지난 9일 부산시 동래구 새마을부녀회(회장 김규심)와 함께 소비자단체 간담회와 더불어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반부패 청렴 실천 공동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통문화 품은 고미술품 장터

시민회관 야외광장서 '고미술 상설전시회' 본격 운영 돌입

부산시설공단은 28일 오전 11시 시민회관 야외 광장에서 '고미술 상설전시회' 개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 상설전시회는 (사)한국고미술협회 부산지회 주관으로 매주 토·일요일마다 전문가 위원들이 직접 고미술품 전시 매매 및 감정 등을 하게 된다.

전시장에는 옛날 할머니가 쓰던 다리미, 목가구 등 생활 소품과 서화, 조각, 금속, 도자기 등을 비롯해 월남전 등에서 미군들이 군수품 공중 투하 때 사용했던 보조 장구 등 다양한 물품들이 선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 첫날에는 2만~3만원대 소품을 비롯해 10만원 안팎의 장식과 실용성을 겸한 옛 생활용품 등이 많이 팔렸다.

이 상설전시회는 지금까지 뒷거래 방식의 고미술품 거래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는 역시 체험 공간 역할을 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옛 추억을 되살리는 볼거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또 수집가와 소장가들이 몰리면서 고미술 애호가들에게는 다양한 고미술 문화재를 감상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고미술 유통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미술협회부산지회 장호순 회장은 "상설전시회를 계기로 고미술품의 유통 질서 확립과 함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더 널리 알릴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더 친숙하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각 가정에서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물품이나 미술품 등을 현장으로 가져오면 감정도 하고 고미술에 대한 설명도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국내 공공문화회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복합문화공간인 부산시민회관이 올해 개관 40주년을 맞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고 보호·보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고미술 상설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의 051)630-5258 /뉴시스

호텔·크루즈 '이틀 밤의 랑데부'

부산웨스틴조선-팬스타 연계 '락 투나잇' 패키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9월 28일부터 2014년 2월 23일까지 호텔과 팬스타 크루즈에서 각 1박을 즐길 수 있는 2박3일 일정의 '락(樂) 투나잇' 패키지를 연계 최초로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과 부산 연안을 투어하며 불꽃놀이와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이는 개별 예약 대비 최소 26만원부터 최대 32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2박 상품의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중앙동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토요일에 출발하는 팬스타 크루즈 디럭스 스위트 1박에 이어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요일 혹은 일요일 1박을 계획하면 된다. 또 객실 내 에스프레소 커피 메이커를 통한 모닝 커피 2잔 제공, 호텔 내 레스토랑 식사 시 10% 할인, 체련장·수영장 이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타입 이용 시 9층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조식 그리고 맥주·와인·칵테일 등을 즐길 수 있는 '해피 아워'와 조각 케이크, 쿠키, 샌드위치, 과일 등을 즐길 수 있는 '데이 타임 스낵'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을 일요일에 이용 시 호텔 내 온천 사우나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팬스타 크루즈는 색소폰과 통기타 공연, 마술쇼, 댄스쇼 등 다양한 이벤트와 저녁 뷔페가 포함된다. 한편 이용 요일과 타입에 따라 2박 기준 가격은 50만~63만원(세금·봉사료 포함)이다. 예약 및 문의 051)749-7001

/정하균기자 [illegible]

서면 '북페' 책의 향기 속으로

다음달 19일 영광도서앞 문화으뜸로 일대서 열려

부산의 도심인 서면에서 색다른 북 페스티벌이 열린다.

부산진구는 다음달 19일 오전 11시부터 영광도서 앞 문화으뜸로 일대에서 '서면 문화으뜸로, 책과 문화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제3회 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북 페스티벌은 종전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됐던 1, 2회 때와는 달리 서면 문화으뜸로에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북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주 무대는 영광도서에서 부전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저렴 동행을 제한 책과 관련해 평소 접하기 힘든 책 등이 전시되고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책 관련 프로그램이 마련돼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이 구간을 넘어 동해남부선 굴다리 앞까지 300m 구간에는 거리의 화가 코너와 부산진구의 과거와 현재 사진전시회 등이 운영돼 문화으뜸로 전 구간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넘쳐난다.

이와 함께 오후 3시 영광도서 앞 본 무대에서는 동화작가인 박성월 작가를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마련한다.

전시로는 평소 보기 힘든 진귀한 책들이 전시된다. 고서 및 민속품 옥편시, 보수동 추억의 책방 큐욱 재현, 원화, 북아트, 우리 동네 시(詩), 작은도서관 홍보, 독도 사진, 부산진구의 과거와 현재 사진 등이 거리에 전시된다.

이외에도 영광도서와 교보문고가 어날 분야별 도서를 10~20% 할인 판매한다. /뉴시스

대한노인복지사업단 연산동에 사무실 개소

(사)대한노인회중앙회복지사업단은 올 초 고령자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경제활동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제구 연산동 소재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이번에 개소한 사업단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활동 및 창업을 유도해 취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청·장년과 함께하는 사회 구현 활동을 통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노인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문의 051)503-8772

11차 ICERS 국제학술회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정경택)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ICERS(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 Room Simulators) 연수원 본원에서 제11차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선박 기관사 교육에 사용되는 첨단 교육 도구인 기관실 시뮬레이터 개발과 연구 결과에 관한 기관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에너지 절감운항 평가 및 시뮬레이션, '비상대응훈련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 총 16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051)620-5851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혁
편 집 국 장	조 은 호
부산지사장 겸 대표	김 보 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01-2100
독 자 센 터	02)721-9800

[illegible]

'영화의 바다'보다 화려한 전야제

남포동 BIFF광장 특설무대서 다음날 2일 핸드프린팅·축하공연

부산은 영화 축제로 물들인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서막이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중구청과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개막식에 앞서 오는 2일 오후 6시 영화제의 발상지이자 영화 산업의 태동지인 중구 남포동 BIFF광장 특설 무대에서 10일간의 축제를 위한 전야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영화제 홍보와 관련 영상물 상영에 이어 영화배우 신영균, 일본 영화감독 와카마츠 코지, 멕시코 영화감독 아르투로 립스테인, 폴란드 영화감독 아그니에슈카 등 4명의 핸드프린팅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BIFF광장에서는 올해 4명을 포함해 52점의 유명 영화배우와 감독들의 핸드프린팅을 만날 수 있다.

또 핸드프린팅 공개와 함께 화려한 경관조명이 점등되고 나면 그룹 코요태, NRG 등 4개 가수팀의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2일 전야제에 이어 BIFF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 3일 오후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개막식을 생중계해 시민과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영화제 기간 동안 부산극장에서는 '감시자들' 외 26편 영화 상영과 '결혼동창생' 외 5개 영화의 야외 무대 인사로 영화배우와 감독과의 만남의 자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국제시장 트라은 작가회의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전」, 다양한 주류를 이용한 칵테일 쇼, 부산·경남지역을 주 무대로 하는 프로 가수들의 '나는 가수다' 공연,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방문객들의 핸드프린팅 체험 행사 및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정하균 기자 jhk@metroseoul.co.kr

'아빠! 숲에가?' 가족 캠프 통고산자연휴양림서 열려

남부지방산림청은 경북 울진 통고산자연휴양림에서 경북지역 10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1박2일 가족 숲 캠프 '아빠! 숲에가?' 캠프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남부산림청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경북지역 45가족 140여 명과 총 3회에 걸쳐 가족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세번째 '아빠! 숲에가?' 캠프는 경북교육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뛰어난 주변 숲 속 환경 속에서 참여 10가족 30명이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가족 의자 화분 만들기 및 대나무 쌧목 제작, 숲 속 올림픽, 숲 속 세족식, 통고산 숲 트래킹 등을 진행했다.

특히 '아빠! 숲에가?'는 이번 회를 시작으로 문경 대야산자연휴양림(5회), 영덕 칠보산자연휴양림(6회), 청도 운문산자연휴양림(7회) 등 산림 휴양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산대 졸업논문 2편 국제학술지 게재

강미경씨 등 물리치료학과 졸업생 4명 쾌거

영산대학교 학생들의 졸업논문이 세계 저명 국제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국제학술지에 2편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졸업한 이 대학 물리치료학과 졸업생인 강미경, 남보라씨가 함께 연구한 논문 '정상성인의 하지에 적용된 저주파와 균형의 관계'와 이주은, 박가현씨가 함께 연구한 '한 발 서기 시 평발과 정상발의 하지 근활성도 비교'가 물리치료 관련 세계 저명 학술지인 더 저널 오브 피지컬 테라피 사이언스(The Journal of Physical Therapy Science) 9월호에 제1저자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게재한 논문은 고가의 장비로 인해 객관적인 실험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웠던 기존 연구들의 측정법과 달리 대학이 구축한 첨단 인프라를 사용한 실험 결과물을 제시해 향후 저주파 지료와 관련된 다른 연구 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섭 학과장은 "학과 특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학생과 교수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해 연구를 장려해온 결과 학과의 최첨단 장비들과 맞물려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하균 기자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미경, 남보라, 박가현, 이주은

부산은행, 부산국제영화제에 7억7000만원 기부 부산은행은 지난 27일 본점 별관 6층에서 성세환 BS금융그룹 회장과 이용관 BIFF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위한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은행측은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을 위해 영화제 기간 동안 필요한 노트북과 프린터 등 전산기기도 무상 제공하는 등 총 7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부산기업 매력발견' 현장투어 고!

구직자 65명 휴롬 방문

부산경제진흥원 내 부산청년일자리센터(부산Yes센터)는 30일 청년 구직자 65명이 '부산기업 매력발견 현장투어'로 휴롬그룹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부산기업 매력발견 현장투어'는 지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 바로 알기를 통해 지역 청년 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 현장투어 프로그램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청년 구직자(대학교 및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들이 채용 계획이 있거나 채용이 진행 중인 부산 및 인근 지역의 우수 기업을 직접 둘러보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구인 구직자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현장투어 신청과 문의는 부산청년일자리센터(www.yesbepa.kr)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시의회 의정비 5년째 동결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조)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시의회는 2009년부터 6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다.

시의회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들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부산지역 경기 침체 장기화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년 의정비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으로 내년 시의원 1인당 의정 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928만원 등 총 5728만원을 받게 된다.

알프스산 오르다 '횡재'

프랑스 등산객 3억원 보석상자 발견… "주인은 1950~60년대 추락한 비행기 탑승객"

세계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13 미스월드 선발대회에서 우승한 미스 필리핀 메건 영(오른쪽)이 동료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필리핀 대표로는 처음으로 미스월드에 오른 영은 미국에서 태어나 10살 때 필리핀으로 이주했으며 현재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AFP 연합뉴스

알프스산에서 루비와 사파이어 등이 가득 담긴 보석 상자가 발견돼 화제다.

27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 글로브 앤 메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한 프랑스 산악인이 몽블랑산을 오르다 우연히 눈 속에서 보석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다.

구두 상자 크기의 이 금속 상자에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이 가득 들어있었다. 해당 보석의 가치는 33만 달러(약 3억5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상자 겉면에 메이드 인 인디아(Made in India)라는 문구가 쓰여있는 것으로 볼 때 상자의 주인이 인도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1950년과 1966년 이 지역에서 두 차례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보석 상자는 당시 탑승객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한 "상자를 발견한 남성이 보석을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있었지만 경찰에게 건네줬다"고 그의 정직함을 높게 평가하면서 "사건 당시 이 부근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프스산맥 최고봉인 몽블랑은 산이 높고 부근 기류가 나빠 항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1966년 인도 항공기도 악천후로 이곳에서 추락했다. 최근 발견된 보석 상자는 이때 사망한 승객의 소지품일 가능성이 크다.

알프스산에서 발견된 보석 상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초로 상자를 주운 프랑스 산악인이 보석 중 일부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CNN 방송은 전했다.

/오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아동 1인당 351만원에 넘긴 中 유괴조직 적발

중국에서 대규모 아동 유괴 조직이 적발됐다.

29일 인민일보 인터넷 사이트인 인민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동 유괴범 300여 명이 체포되고 신생아를 포함한 아동 92명이 구출됐다.

아동 유괴 조직은 쓰촨, 허난, 산둥성 등 중국 11개 성에서 활동하며 아이들을 유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버스나 기차로 이동, 1인당 약 2만 위안(약 351만원)에 팔아넘겼다.

중국에서는 한자녀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 등으로 아동 유괴와 납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조선미기자

"난 여자"… 아르헨 6세 남아 성전환 허가

아르헨티나에서 6세 소년이 당국이 마련한 성정체성 법안에 따라 최연소 트랜스젠더가 된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 등 외신에 따르면 새 법안에 따라 이 소년은 '마누엘'에서 '룰루'로 새로 태어나게 됐다.

지난해 5월 아르헨티나에서는 법적 소송 없이 행정 절차만으로 성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부모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여자"라고 말했다며 아이의 성정체성에 대해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동성애 커뮤니티 관계자는 룰루의 사례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인들은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적 소송을 거치지 않고 행정 절차만으로 성과 이름을 바꾼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미기자

발바닥, 발가락 통증?
더 이상 참지마세요!

발바닥에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하게 전기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간신경종(몰톤씨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지간신경종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꺾여지는 부분인 발바닥의 앞쪽에 무언가 이물질을 한 겹 붙여놓은 것처럼 느낌이 둔감하거나 마치 모래를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각이 이상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리고 심하면 통증마저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어보고 허리가 원인인가 싶어 허리 MRI도 촬영하고, 혈관문제인가 싶어 혈관조영술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걷는 것마저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현대인의 발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중 5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이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

진료안내
· 선천성 족부 수부기형
· 족부 관절질
· 수부정형
· 당뇨족 골다공증
부설
물리치료실 | 수술실 | 입원실 | 방사선실 | 골다공증검사실
문의전화 051 897 7582

예쁜 발-작은발'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씬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이 생기는 지간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박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서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여성 분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치료해

부산에서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등 족부관련질환을 전담하여 케어하는 족부클리닉을 운영중인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연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허리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과 발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손과 달리 발은 체중을 부하하여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행을 편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해야 하며 발이 불편하면 보행이 틀어지므로 무릎, 엉치,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디스크, 하지정맥류, 혈관장애 등으로 오인, 오랜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중에서 체중의 압박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막연히 발이 저리다고 하는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을 잘라내지않고, 절골술을 시행, 지간신경종의 원인을 제거한다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중족골 사이에 끼어서 붓게 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동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 지간신경종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법을 시행하여 수술 부작용을 더 줄여고, 재발을 걱정도 덜어준다. 그러면서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연금도 분산투자해야

"변액연금 보험사서 최저이율 보장…장기적관점 접근"

금융가 사람들

■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실장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투자 격언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손성동(사진) 연구실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노령화시대를 앞두고 연금 관리에서도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연구실장은 지난 27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불충분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개인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불려야 한다"며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안정성은 높은 편이므로 최소한 개인연금만이라도 변액연금이나 연금펀드 등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품에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만 납부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의 운용방식이 확정급여(DB)형인지 확정기여(DC)형인지 숙지하고 DC형이라면 퇴직연금 자산을 불리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DB형은 사실상 기업에서 책임을 지는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DC형은 연간 한 달치 월급 정도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고 알아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은퇴 후 퇴직연금액이 이전 퇴직금 제도에서 받았을 금액보다도 적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투자 정보를 적극 알아보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인연금을 운용할 때는 변액연금이나 연금펀드 등에 관심을 둬야 한다. 그는 "변액연금은 보험사에서 최저 이율을 보장해주므로 안전판이 있으면서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또 "연금펀드의 경우 실적배당형이므로 리스크가 있지만 노후자금의 자산을 여러 투자 환경에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투자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금리 상황에 생활물가는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금융 지식을 쌓고 투자처를 찾지 않으면 노후자금을 원하는 만큼 불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11.80 (+4.48)	537.50 (+4.67)	2.83 (-0.02)	1073.70 (-1.40)

뉴스&뉴스

카드사연회비 청구 관행 제동

●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의 연회비 무단 청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다음에 연회비 청구 2개월 전에 연회비 청구 예정 사실과 금액을 안내해 고객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BSI 6개월만에 100 웃돌아

● 주요 대기업이 하반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웃돌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BSI 조사 결과 10월 전망치는 101.1로 기준선 100을 상회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공항출입국 우대

● 국세청은 29일 성실 납세에 앞장선 1020명을 새로 선정해 향후 2년간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공기 승무원이 이용하는 전용 출입문을 통해 보안 검색을 받고, 모범 납세자 전용 부스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는 등 출입국 시 신속하고 편리한 절차를 밟게 된다.

동양그룹 1100억 만기 오늘 '운명의 날'

494억원 자금 부족 상태

동양그룹이 돌아오는 110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만기로 30일 첫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과 동양그룹에 따르면 만기가 도래하는 동양그룹 회사채는 905억원, CP는 195억원으로 총 1100억원 규모다. 동양은 606억원의 회사채 상환 자금을 기존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나머지 299억원과 CP 만기 도래의 195억원 등 총 494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다.

동양그룹은 동양매직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B 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의 동양매직 기업 결합을 사전 승인한 상태지만 컨소시엄 내부에서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어 아직 금감원에 사모펀드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그룹이 첫 고비를 극적으로 넘긴다고 해도 위기는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에는 지난 28일까지 900여 건의 동양증권 CP와 회사채 불완전 판매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투기 등급인 이들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를 권했다는 이유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접수된 피해 사례를 근거로 동양증권 측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SKT도 광대역 LTE 서비스

KT와 전쟁 돌입

KT가 지난 14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SK텔레콤 역시 30일부터 마포구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

양사는 다음달 중 서울 전 지역으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대역 LTE는 주파수 대역폭을 확대한 것으로 기존 LTE(최대 75Mbps) 대비 최대 두 배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기존 LTE폰을 그대로 이용하면 최대 100Mbps, LTE-A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면 최대 150Mbps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

KT와 SK텔레콤은 지난달 주파수 경매에서 기존 LTE망으로 사용하던 1.8GHz 대역을 추가 확보하며 광대역 LTE의 조기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2.6GHz 대역을 확보하며 광대역 LTE 서비스를 위한 준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져 가입자 이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LTE 가입자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근소한 차로 2위를 유지하고 있는 KT는 광대역 LTE 서비스 시작을 계기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가입자 추가 확보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연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광대역 LTE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쟁사에 한 두달 뒤처진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seon기자

재벌 총수들 '수난시대'

SK그룹 형제 모두 실형 선고…법 심판 기업인 더 나올수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재벌 총수들의 수난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27일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 혐의로 최태원(사진 왼쪽)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오른쪽) 부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형제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재벌도 법대로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매번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우 주요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으며 예는 때보다 '재벌 때리기'의 강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친기업적인 성향을 띠었던 이명박 정부와 비교되며 박근혜 정부의 행보가 지나치게 반기업적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누구나 법을 어겼으면 조사를 받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기조로 이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수천억원대의 배임과 횡령, 탈세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다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나란히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됐으며,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은 1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각에선 법의 심판대에 설 재벌 총수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국세청은 조석래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며, 이달 들어 포스코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정준양 회장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세영기자 sy0403@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우체국 알뜰폰 660건 판매

● 알뜰폰이 우체국 덕을 제대로 봤다.

우정사업본부는 알뜰폰 수탁 판매 개시일인 지난 27일 전국 226개 우체국에서 총 666건의 알뜰폰 가입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72건은 요금제와 단말기를 모두 알뜰폰 상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194건은 이용자들이 이미 보유한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요금제만 알뜰폰 상품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체국 판매에 참여한 알뜰폰 사업자는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스페이스네트, 머천드코리아 등 총 6곳. 단순 계산하면 한 사업자당 111명의 가입자를 모집한 셈이다. /박성훈기자

MS 발머 후임 포드 CEO?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연내 퇴신하는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CEO)의 후임으로 앨런 물랄리 포드 CEO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IT 전문 웹사이트 '올씽스 디지털'은 28일(현지시간) MS가 물랄리와 접촉하고 있으며 진지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발머의 후임으로 스티븐 엘롭 노키아 CEO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물랄리 영입 추진으로 인해 차기 CEO 선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분위기다.

한편 물랄리는 지난 7년간 포드 사장과 CEO를 겸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이재영기자

UAE 아즈만 무역자대 10월 10일 투자설명회

중동지역의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아즈만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오는 10월 10일 아즈만 자유무역구역청(AFZA) 주최로 서울 논현동 컨벤션센터 파티오나인에서 개최된다.

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의 하나인 아즈만은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자연환경, 전통과 현대의 공존으로 건설, 쇼핑, 의료, 부동산 등 다양한 해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며 전 세계 많은 기업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문의 (02)713-1213

KT 대학생봉사단 청각아동 후원 활동 KT 올레 대학생봉사단은 사회적기업인 더나누기, 더페어스토리와 함께 청각장애 아동을 후원하고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대학생봉사단과 함께하는 소셜마켓' 행사를 지난 28일 서울 KT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열었다. 대학생봉사단과 더나누기, 더페어스토리 직원들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KT제공

이중근 부영 회장 끝없는 나눔경영

진주고 '우정학사' 첫삽

국내외에 교육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온 부영그룹 이중근(사진) 회장의 나눔경영이 수학의 제정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7일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진주고등학교에 다목적 기숙사인 '우정학사'를 신축 기증하기로 하고 첫 삽을 뜨는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에서 이름 붙인 '우정학사'는 연면적 1332㎡(403평)에 지상 4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할 예정이다. 기숙사 28실과 독서실, 샤워장 등의 다양한 학습, 교육과 편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1925년 개교 이래 수많은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진주고등학교는 지금까지 3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현재는 총 27개 학급에 학생 수 888명에 이르는 경남지역 명문 고등학교로 자리하고 있다.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인 3S-UP 운영을 통해 2011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데 이어 2012년에는 경남도 교육청이 평가한 교육과정과 학교 평가, 학력 향상 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그동안 기숙사가 없어 애를 태우던 학교 측은 이번 기회로 숙원 사업이 해결됨으로써 교육 환경이 개선돼 우수 학생을 유지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근기기자 mini@

'가을 팩트의 전설' 터치

터치 바이 이경민 신제품 '크림 인 파운데이션' 출시
150시간 보습력·가벼운 발림성·깔끔한 커버력 화제

일교차가 크고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엔 피부가 급격하게 건조해진다. 이런 날씨에는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금세 들뜨기 마련인데 깨끗하고 촉촉한 피부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사진) 원장은 올가을 푸석한 피부가 고민인 여성들에게 '터치 바이 이경민'의 신제품 '크림 인 파운데이션'을 추천했다.

◆대한민국 뷰티 산increases의 시작, 터치 바이 이경민

결점 없이 매끄럽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기로 유명한 이 원장은 대한민국 뷰티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데뷔 이후 줄곧 한길을 달려온 그는 어느덧 데뷔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1985년 처음 뷰티업계에 입문한 이 원장은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으며 1994년 자신의 첫 살롱을 오픈했다. 이후 2002년 '이경민 포레'로 확장하며 아티스트로서 위치를 다지고, 2013년에는 '터치 바이 이경민'을 론칭했다.

이 원장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승승장구하던 시절 해외 브랜드만을 고집하는 백화점 관계자와 셀러브리티들을 보며 국내 절상급 브랜드 부재에 아쉬움을 느껴 터치 바이 이경민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터치 바이 이경민을 론칭하기 전 독일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유명한 랩(LAB) 연구소들을 직접 수소문해 제품을 개발했을 정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자존심을 철저히 지켰다. 이렇게 출시된 터치 바이 이경민은 뛰어난 품질로 론칭과 동시에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국내 뷰티 업계의 신비로 기록됐다.

◆150시간 수분보습 지속력과 초밀착 커버

터치 바이 이경민은 올가을 새로운 신제품 '크림 인 파운데이션'을 선보이며 전설의 귀환을 예고했다.

이 원장의 30년 뷰티 노하우가 총망라된 이 제품은 150시간에 이르는 수분 보습력과 단 한 번의 터치로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초밀착 리프팅 커버력,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고농축 에센스 성분 등으로 출시 전부터 뷰티족들 사이에서 '아티스트 팩트'라는 별칭을 얻으며 화제를 모았다.

가장 큰 장점은 '150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분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본바탕이 좋아야 한다는 이 원장의 원칙에 따라 20가지 천연유래 에센스 보습 성분이 피부 속 수분을 잡아주고, 모에스처 키핑 콤플렉스 성분이 피부 표면의 수분을 지켜줘 안팎으로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또한 리퀴드 타입의 장점인 가볍고 부드러운 발림성과 크림 타입의 장점인 완벽한 커버력을 하나로 담아낸 큐전 제형을 사용해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 가벼우면서도 결점 없이 완벽한 피부가 연출된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 특허 받은 필러 성분이 함유돼 있어 얼굴을 입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리프팅 효과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용기 디자인에서도 이 원장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과한 메이크업을 지양하는 이 원장의 '빼기 철학'처럼 필요한 만큼만 새롭게 덜어 쓰는 과학적인 금형 구조로 설계돼 있어 위생까지 만족시켜준다. 여기에 2000개의 홀로 이루어진 슬림망과 항균 압축 퍼프가 더해져 마치 고농축 엠플처럼 소량만으로도 완벽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조광페인트 'DIY·리폼박람회' 후원

페인팅 체험교육 등 실시
29일 코엑스에서 막내려

도료 전문업체 조광페인트가 26~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DIY&리폼박람회'를 후원하고 다양한 이벤트 등 진행했다.

조광페인트는 박람회 기간 동안 현장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프리미엄 친환경 페인트 '자연N', 이탈리아 명품 데커레이션 페인트 '제너레이션 아트' 등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관람객을 대상으로 페인트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를 벌였다.

레이지·핑크·뷔일로 알려진 유명 페인팅 아티스트 신주은 씨가 '환경 보전'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치고, 즉석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줬다. 또 '자연N 어디나'로 화상 정리 수납함을, '제너레이션 아트'로는 티슈 케이스를 페인팅하는 DIY 페인팅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로 66년을 맞이하는 조광페인트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페인트 인증을 받는 등 선진화된 기술력으로 건자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나랏빚 대물림하는 복지 '우선멈춤'

청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지금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세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기초연금을 당초 대선 공약에서 후퇴하는 방안을 내놓자 야당은 '공약을 저버린 대통령'이라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65세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비교적 많은 30%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부안이 나오자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사과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임기 내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공약 포기'라는 야당의 주장을 적극 방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전은 이제 서막에 불과하다. 앞으로 기초연금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격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인 논쟁 이전에 지금 우리나라 재정 형편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내년도 국가 채무는 무려 51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간 이자 지급만 해도 20조원이 넘는다. 오는 2017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 방안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2020년이 되면 26조4000억원, 2040년에는 161조3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 재정의 확대는 증세의 뒷받침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년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19.7%로 유럽의 여러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맹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복지국가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 3450만원(중산층의 중간) 이상 소득자에 16만원을 증수하겠다는 세법개정안 커다란 조세 저항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판에 기초연금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는 발상은 애당초 잘못됐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면 '우선 멈춤'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기초연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역차별이다.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 후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내놓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무상 시리즈로 이어지는 복지정책을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으로 나라 살림을 지탱할 수 없다.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신뢰의 가격

뉴스룸에서
이국원 <경제산업부장>

미국에서 가장 큰 항공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항공이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

항공 예약 사이트가 2시간가량 오류를 일으킨 사이 0달러에 팔린 항공권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오류가 생길 경우 탑승권을 모두 인정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기존 비슷한 사례에서 다른 항공사들은 할인권 등을 제공해 무마해왔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번 문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통 큰' 결단을 내렸다.

기초노령연금을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청와대로 노인들을 초청한 27일 오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향후 복지 확대 수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라는 돌발 악재를 이유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국가 재정은 기초노령연금 등을 거론하기 힘들 만큼 심각한 지경이다. 내년엔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서고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무려 10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국가 빚을 지고 사는 셈이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인해 부족한 세수가 올 한 해만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세계은행이 41개국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한 국가의 신뢰 수준이 15% 낮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3조원가량 줄어든다. 이는 올해 부족한 세수보다 많은 수치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4년간 재원 47조1000억원은 신뢰 추락으로 줄어드는 4년간 GDP(약 52조원)와 거의 비슷하다.

기업은 물론 정부도 신뢰로 먹고 산다.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킨 유나이티드 항공의 '통 큰 결단'을 현 정부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라도 다시 검토해보길 바란다.

포토프리즘

우리가 '아름다운 한글' 지킴이

27일 오후 숙명여고 미술부 학생들이 한글날(10월 9일)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우리말을 사랑하자는 취지의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시민들에게 다가가 열심히 한글을 알리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엿보였다. /손진영기자 son@

문명의 무늬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보스포루스해협의 바람이 이스탄불의 골목을 휘감아 [illegible] 도시가 [illegible] 드러내준다. 언덕 위의 성채가 [illegible] 안개와 파기가 그린 수채화도 못 모한다.

이스탄불에 얽힌 전설은 두고두고 마르지 않는 샘이다. 문명사에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소피아 성당 안의 황금색 모자이크로 새겨진 성화(聖畵)는 그려진 이후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400~500년 동안 회칠 아래 은폐되었다. 1453년 오스만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을 사로잡은 뒤, 이곳은 파괴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대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운명의 역전을 겪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기묘한 공존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조심스럽게 회칠을 벗겨내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그 안에 [illegible] 시게 빛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던 흔적을 다시 지우고 원상으로 복구하지는 않았다. 그건 지난 문명에 대한 폭력이 되기 때문이다.

실크로드 도상인 투루판으로 가는 중에 하미라는 곳을 만나게 된다. 천산 고원의 찬 기운과는 달리 타들어가는 듯한 태양으로 온통 열사(熱砂)의 기후를 내뿜었다.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메르는 곳인지라 흙벽돌과 건포도는 어디에나 널려 있었다. 청조가 무력으로 지배하기 전에는 꽤나 번성했던 길 위의 고역도시 하미에는 이슬람의 유적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이슬람 사원은 우리가 흔히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안으로 들어서면 예상할 수 없는 구조물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거대한 이슬람 문양과 대리석 조각은 어디에도 없다. 청조 당시의 목조 기둥에 사원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고, 그 끝에는 불교의 상징인 연꽃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다생지와는 전혀 다른 땅에서 문명의 혼재(混在)가 이루어낸 독특한 무늬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바로 우리 모습일지 모른다. 인간은 한 가지 문명의 유산으로 구성돼 있지도 않고 파악되지도 않는다. 서로 인연이 없어 보일 수 있는 무늬들이 한데 뒤섞여 공존하고 있는 존재다. 그걸 알면 각기 다른 무늬를 시빗거리로 삼아 싸우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서로의 내면에 공존하는 여러 무늬들이 지닌 개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은 인간 이해의 본질이다. 무늬는 단조롭지 않을수록 더욱 매력적이다.

소비자 울리는 단말기 독과점

기자수첩
이재영 <경제산업부 기자>

"휴대전화 시장엔 삼성전자와 애플만 있나요?"

가족, 친구, 이웃들의 손에 들려 있는 휴대전화를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나 애플 '아이폰' 시리즈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 2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1.7%, 애플이 13.3%를 차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2명 중 1명꼴로 삼성전자나 애플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삼성과 애플의 쏠림 현상으로 경쟁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인 팬택은 적자에 허덕이다 박병엽 부회장이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글로벌 시장에선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 부문과 블랙베리가 각각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어팩스 파이낸셜 홀딩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매각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은 갈수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히는 부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과점 현상이 벌어지며 단말기 가격마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추진 등 이동통신사 측면에서만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의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면, 고가의 단말기 가격부터 낮추고 시장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새 아파트 보자” 방문객 줄서기 전쟁

서울 금싸라기 땅' 마곡지구 분양현장 가보니

다양한 연령대 '북적'… "미래 투자가치 매력적"

서울의 마지막 대형 택지 개발로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지하철 5호선 마곡역에서 내리니 광활한 대지에 속속 지어지고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청약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마곡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자리 잡은 모델하우스에도 끊임없는 발길이 이어졌다.

방문객 대다수는 살지 말지 고민 중이지만 일단 둘러보러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율이 높았다. 아기를 안고 온 젊은 엄마들에서부터 중학생 딸과 함께 온 주부, 장년층 부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델하우스에 마련된 46평형 아파트의 구조를 둘러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서울 발산동에 거주한다는 40대 중반의 부부는 "현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다"며 "청약은 일단 넣을 것 같다. 시세보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와봤는데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신대방동에서 온 40대 중반의 한 주부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고 오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다만 마곡지구 내 조성되는 보타닉 공원을 큰 매력으로 여겼는데 직접 와보니 예상과 달리 보타닉 공원의 입지가 아파트 단지들보다 산업단지에 더 가까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보타닉 공원은 여의도 공원의 두 배인 50만㎡ 규모로 조성되며 한강과 연결된다.

모델하우스 1층에 마련된 시중 은행의 대출 상담 부스 등에도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일부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서울 개봉동에서 온 60대 남성은 "아직 아파트가 다 지어지지 않아 마곡지구가 황량해 보이지만 5~6년 후를 내다볼 때 미래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며 "일반 서민들에겐 서울 강남 생활권인 위례신도시보다 이곳이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마곡지구 실수요로 이어질까

마곡지구의 총 면적은 366만㎡에 이른다. 이는 인근 서울 상암동의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여의도 공원 2배 규모인 보타닉 공원을 중심으로 LG·코오롱·대우조선해양·이랜드 등 대기업을 포함한 36개 기업의 산업단지를 포함, 주거·업무·상업지구를 통합한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마곡지구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3.3㎡당 1200만원 안팎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200만~600만원 낮게 책정됐다. SH공사 측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주택 규모별(평수)로는 … 각 59㎡ 21가구, 84㎡ 841가구, 114㎡ 1235가구 등이다.

평수별로 최대 16개의 타입이 마련돼 다양한 수요를 충족한다. 또 84㎡ 물량의 경우 지난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청약가점제가 폐지되면서 2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분양가는 단지 및 층에 따라 59㎡가 2억8830만~3억1020만원, 84㎡가 3억9160만~4억4550만원, 114㎡가 4억8970만~5억7440만원으로 책정됐다.

마곡지구의 또 다른 장점은 편리한 교통편이다.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 등 3개의 지하철 노선, 지구 내 5호선 마곡역·발산역, 9호선 신방화역·양천향교역·마곡나루역 등 6개의 지하철역이 자리 잡은 더블·트리플 역세권으로서 서울 도심 접근성이 매우 높다.

/마곡=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예비 청약자들이 마곡지구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평일도 7000명 모델하우스 찾아”

허윤영 마곡지구 분양팀장

"평일에는 3000~7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간다. 청약을 하루 앞둔 오늘은 벌써 8000명이 방문했고 모델하우스 마감 전까지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마곡지구 허윤영(사진) 일반분양팀장은 쉴 새 없이 몰려드는 방문객들로 숨 돌릴 틈이 없다고 전했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마곡지구 아파트 9개 단지의 1·2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209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973명이 몰려 평균 2.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는 "실제 청약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며 "또 강서구, 양천구 등 인근 지역 거주민들과 더불어 위례신도시 청약에서 떨어진 강남권 수요도 많이 몰리는 등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손진영기자

교육 여건도 양호하게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녀를 키우는 중년 부부들의 갈아타기 수요에서는 학군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그는 "기존에 설립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인근에 고등학교가 신설 예정"이라며 "IT업계 종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의 연구시설 등이 입주하면 자연스럽게 학군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곡의 임대 비중이 많아 향후 시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선 "장기 전세, 국민임대 등 임대 비중이 절반 정도 차지하지만 이미 분양 가격이 많이 올랐으므로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마곡=김현정기자

신혼부부 서울외곽 소형 노려볼만

주석 ⑨ 내 집 마련 전략

전셋값 고공 행진 속에 예비 신혼 부부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8.28 전월세 대책으로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하기에 보다 수월해진 환경이 조성되면서 비싼 전셋집에서 살기보단 좀 더 보태서 중소형 아파트를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8·28 대책에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에게 저금리(수익형 연 1.5%, 손익형 연 1~2%)를 적용하는 신모기지 상품을 다음달부터 출시한다. 여기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올해 안에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5년간 양도소득세도 면제해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면 평균 2억~3억원가량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혼부부라면 이 가격으로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강북 노원·동대문 성북·중랑구 등 강북권에 눈을 돌리면 매매가 2억원대이며 지하철 역세권에 자리 잡은 아파트 단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 다음은 전문가들과의 일문일답

Q: 신혼부부가 전세보다 중소형 아파트 매입을 선택해도 괜찮은 이유는?

A: 역세권 소형 아파트는 매매가 잘되기 때문에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 큰 평수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신혼부부에게 적합하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

Q: 신혼부부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입한다면?

A: 반대한다. 이들 주택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므로 기본 시설이나 공용 시설이 아파트에 비해 열악하다. 향후 시세 차익을 노릴 여건도 아니므로 주거 목적의 매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리서치팀장)

/김현정기자 hjkim1@

전문가 하반기 부동산 전망

<1면에서 계속>

그는 전세난 해결책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꼽았다. 장기전세주택은 정부가 20년간 전세로 살 수 있게 한 임대주택이다. 주변 전세 시세보다 70~80% 선에서 공급되는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서 인기가 좋다.

권일 팀장도 "단기간에 공급을 늘려 잡을 것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짓는다 해도 앞으로 1~2년 뒤에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따라서 이 문제는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옮겨가는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내년 상반기가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변수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은진 팀장은 "가계 부채가 변수다. 지금 부채를 축소하는 게 미흡하다. 이게 병행된다면 부동산 시장 불안은 과잉 공포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희 팀장도 "심리 회복이 관건"이라고 운을 띄운 뒤 "사실 지금이 집을 사기 최적기이지만, 국내 경제 상황이나 체감 경기가 불안한 상황이라서 선뜻 집을 구입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2013

부산은행 창립46주년 기념콘서트

동행

강권모 | 신효범 | 이영현 | 남궁옥분 | 홍경민

2013.10.19(토)
- 1회 공연 : 오후 3시
- 2회 공연 : 오후 7시

벡스코 오디토리움

차가운 바람이 짙어지는 늦은 가을을 맞아
희망의 온기를 드리는
부산은행 창립46주년 기념콘서트 - 동행을 선물합니다.

- 관람신청기간 : 9월 27일(금) ~ 10월 4일(금)
- 관람신청방법 : 부산은행 전지점 또는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

BS금융그룹 BS 부산은행

날씨

9/30 月 일출 06 26 일몰 18 1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56.co.kr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제주, 강릉, 울릉도, 대구, 포항, 울산, 부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지럽거나 손발 및 혀가 저리거나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기 가능 지수 / 혈관 계질환 가능지수 / 뇌졸중 가능지수 / 피부 질환 가능지수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1	9	8	
		5		2			4	
					6			
9	3					4		
			1	6	3			
		1					2	5
			3					
	4			1		8		
	6	8	9					1

스도쿠 정답

			9				3	
6				8	2		5	
1	2	9			3		6	
8								
		7				8		
								3
	3		5			6	2	1
	1		7	2				9
	9				4			

문제제공=보누스

가족의 합리성

임경선의 모놀로그

알고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고들 한다.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도 대개의 일상에서 서로에 대한 불만족을 누르고 정으로 끌어안고 살아간다. 문제는 안 좋은 일이 생길 경우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아프실 때.

처음에 자식들은 슬퍼하고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민폐 끼칠까 미안해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신다. 그러다가 병환이 조금씩 장기화되면서 기류가 서서히 변한다. 가족들은 자기가고 서로 눈치를 보거나 짜증 섞인 책임미루기가 시작된다. 급기야는 시간과 돈을 의식하게 되면서 '나만 손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서로 지친다. 성인이 아닌 이상 자신이 만만해서 더 많이 배돌도록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 어쨌거나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것이고 남의 몸(가족도 엄밀히 따지면 남이다)보다 내 몸을 더 아끼는 것이다. 간혹 TV프로그램에서 갈등이 극에 치닫던 가족들의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다루던데 말미에 훈훈하게 끝났을지라도, 카메라가 사라진 후 어떻게 될까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이기심의 싹이 표면으로 노출돼 갈치되고 어느새 너나 나나 '나만 억울할 수 없다' 싶으면 상황이 불신과 카오스로 치닫는 건 시간 문제다. 실질적 노동 외의 이러한 감정 스트레스가 더 크다. 그러나 내가 한구석 기대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이기심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믿음이다. 가족 중 누군가가 나서서 모두의 불안하게 일렁이는 이기심들을 취합해서 짜맞추고 거기서 삐져나오는 부분은 각자 조금씩 타협하고 포기하도록 조정해볼 수도 있다. 가족에 대해 헌신이나 죄의식으로 '감정적'이 될 게 아니라 이기심의 교통 정리 후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이게 설득이 되려면 가족 중 누군가가 나서서 상대적으로 더 손해를 봐야만 한다. 그래야만 다른 가족들은 안도하고 말을 들으니까. 표면적인 효 사상이나 가족애가 무리하면 가족 불화와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가족 안에 합리성과 배려가 균형을 이루는 게 다 함께 살 길이다. /칼럼니스트

김상회의 사주속으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4000.com

소개팅한 연상녀와 잘 되려면 경제적 부담 안주고 헌신해야

사봉이 남자 81년 8월 17일 묘시 새벽 3시

Q 지난 1월쯤 사건을 물었습니다. 그때 만나는 동갑 여자분과 잘될지 물어봤었는데 4월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그 여자분과는 잘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4월이 되자마자 지인이 소개팅을 주선해주었습니다. 저보니 나이가 많은데 인연이 될까요?

A 메트로신문 '사주속으로' 코너를 운영하는 보람이 있군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팔자이니 운이 의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게 사주팔자입니다. 여자를 만나면서 처음부터 말과 생각을 깊이 하지 말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헌신적인 자세를 취해 가정이 화목하고 시가(媤家)다 미래의 가정을 번흥시키도록 하십시오. 이번에 안 되면 변인으로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78년에 남에 정유금(丁酉金)으로 다소 힘들고 미세가 있으니 과장이니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니고 너무 솔직하게 지난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도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11~12월 이별수에 유의하세요.

'몇달째 별거' 우리 부부 어쩌죠 서로 내탓이란 맘으로 잡아야

가로수거리 여자 78년 6월 1일 양력 오전 8시
남자 77년 5월 11일 양력 오전

Q 선생님 글 보면서 위안을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몇 달째 별거 중인데 앞으로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시도해봐도 서로 자신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기에 얘기가 잘 풀리지 않네요. 아이가 있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몸도 너무 아프고 이래저래 힘든 시간입니다.

A 사연을 읽어 보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나 사주 설명을 하자면 연월일시에서 1978년생 용띠가 계사월(癸巳月)에 태어났습니다. 사월(巳月) 사중 경금(庚金)에서 경금이 남편으로 표현됩니다. 경금이 포태법(胞胎法) 십이운성(十二運星)으로 병지(病支)에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온순하나 신경질 결벽증이 있고 가족과 인연이 적습니다. 재물복은 말년에 있고 취미가 다양한 사주입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의 성격과 습관을 잘 알고 더 지혜야 하는데 오래 살다 보면 나중에는 부부가 서로 같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일이건 원만한 결과를 얻기 위한 비결은 인내에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내 탓으로 돌리고 건강에 꼭 더 신경 쓰며 지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잣맞하면 소신 굽히지 마라. 60년생 모의한 일은 물발로 끝난다. 72년생 기회가 왔을 때 꿈을 디자인하라. 84년생 구상 중인 계획은 감이 잡힌다.

소 49년생 저울질은 짧을수록 좋다. 61년생 말보단 행동으로 존재감 보여줘라. 73년생 독하게 일한 만큼 큰 성과 거둔다. 85년생 비정규직 사원은 신상 변화 기대하라.

호랑이 50년생 생각도 못 한 공돈이 생겨 이또~ 62년생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뤄진다. 74년생 험가운 일은 내려놓아라. 86년생 상사 눈치 적당히 보는 게 신상에 좋다.

토끼 51년생 경쟁자가 든든한 지원군 된다. 63년생 사연이 없는 팀게는 없는 법~ 75년생 뜻을 머물 망석은 끝났다. 87년생 한 지붕 살 배필감 나타나니 꼭 잡아라.

용 52년생 조건 좋아도 궁합 없으면 물어서라. 64년생 방심하면 크게 뒤부 맞는다. 76년생 돈 때문에 동귀 잃지 않도록. 88년생 사랑이다 속진 등에서 악재 탄다.

뱀 53년생 위기는 아슬아슬하게 넘긴다. 65년생 자녀의 색존 색 키우려면 모자라게 줘라. 77년생 귀인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다. 89년생 실수 만회할 방법을 찾아보라.

말 42년생 입소문에 흔들리지 마라. 54년생 배우자와 함굴 맞대어 서름이 깊어진다. 66년생 새 길을 열려면 고정관념 깨라. 78년생 주변 찾고 빈일로 뜸으면 큰코다친다.

양 43년생 희선을 다하면 고민은 풀린다. 55년생 자영업자는 매합이 올라 싱글벙글~ 67년생 독주보난 상생의 길이 필요하다. 79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 이호~

원숭이 44년생 집안 문제는 낙천적으로 생각하라. 56년생 무리한 주장은 일을 더 꼬이게 한다. 68년생 자신 없으면 나서지 마라. 80년생 취식 벗어나면 수고하고도 욕먹는다.

닭 45년생 거부할 수 없는 부탁이 들어온다. 57년생 운세가 길하니 적극 움직여라. 69년생 명분에 집착하면 큰 것 놓친다. 81년생 큰 뜻을 이루려면 사소한 것은 무시하라.

개 46년생 어른사람 의견 따르면 만사형통~ 58년생 밖으로 나가면 후회 대접받는다. 70년생 조건이 너무 좋은 문서는 멀리하라. 82년생 동업하는 벗이 생겨 유쾌하다.

돼지 47년생 투자는 변수 많아 예의 주시해야 한다. 59년생 급할수록 여유를 가져라. 71년생 역량은 있으나 점시뿐이니. 83년생 연인과 감정 굽지 않도록 조심할 것.

"뼛속까지 악역…처음엔 거절했죠"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김윤석

다음달 9일 개봉될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이하 '화이')에서 악(惡)의 화신 석태 역을 연기한 김윤석(45)은 극중의 살기 어린 표정을 거두고 무척 온화해 보였다. 전작들의 캐릭터와 일부 유사하게 볼 관객들도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는 "2008년 '타짜'와 2010년 '황해' 사이에, 그리고 '황해'와 '화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작품이 있었는데…"라며 쓴웃음으로 답했다.

– 악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 듯하다.

맞다. 그래서 처음엔 출연을 고사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영화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을 고쳐먹었다.

– 극중 석태는 순수 악의 결정체란 점에서 앞서 연기했던 '타짜'의 아귀, '황해'의 면가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드라마 자체가 다른데 과연 그렇게 볼까. 석태는 선을 선으로 보지 않고 악은 악으로 다스린다. 이를테면 본능적으로 위악적인 인물이다. 또 사랑하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화이(여진구)를 괴롭히는 게 실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아귀와 면가가 자기와 비슷한 악인들을 상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선작들 가운데 비슷한 캐릭터를 굳이 찾자면 '천하장사 마돈나'의 아버지에 가깝다.

– 실제로도 아들뻘인 여진구와 호흡을 맞췄다.

이번 영화로 극찬을 받아 마땅하다. 주인공인 (여)진구가 (연기를) 못 하면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놀라울 만큼 잘 해내더라. 나중에는 '얘가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할까' 라는 궁금증마저 들 정도였다. 좋은 집안에서 가정 교육을 잘 받아 심신이 무척 건강하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다.

– 여진구와 공연한다는 소식에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았나.

아직 어려 진구를 잘 모르더라.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드라마를 보지 않아 연기자들은 알지 못한다.

– 2003년 데뷔작 '지구를 지켜라' 이후 10년 만에 장편 상업영화로 돌아온 장준환 감독과 손잡았다.

자칫 부담감에 서두를 법도 했지만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편안하게 현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에 감탄했다. 소년처럼 천진한 감성의 소유자이면서도 때론 아주 나이 지긋한 어르신의 느낌까지 풍긴다. 한마디로 사고의 폭이 대단히 넓다. 또 문득문득 천재적인 기질도 엿볼 수 있었는데, 그랬으니 '화이'가 나오지 않았겠나.

– 절친한 사이인 송강호 주연의 '관상'이 인기리에 상영 중이다. 설경구와 '들개' 인생'에서 작업했던 이준익 감독의 '소원'도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다.

모두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지금은 내 코가 석 자다. 관객들이 어떻게 봐줄지 몹시 궁금한 마당에 남의 작품을 신경 쓸 여력이 있겠나.

석태 선을 선으로 안보는 인물
주연 여진구 연기 놀라울 따름
다양한 관객 해석 나오길 바라

– 관객들로부터 얻고 싶은 반응이 있다면.

장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다양한 해석이 나왔으면 좋겠다. 다층적인 시각으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화이'는 각종 클리셰 투성이다. 일각에서는 고대 그리스 비극을 보는 것 같다고도 하더라. 보기에 만만하지 않고 다소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기했던 우리도 힘들었는데, 무조건 편안하게 봐달라면 그건 억지다. 그렇지만 오래오래 의미를 캐면 캘수록 음미할 게 많은 영화이므로 각자의 다양한 시선으로 관람해주셨으면 한다.

– 차기작 일정이 궁금하다.

다음달부터 '해무' 촬영에 돌입한다. 연극으로 유명했던 작품을 스크린에 옮긴다. 박유천도 함께 출연한다. 경남 마산의 바닷가 등 전국을 돌며 촬영할 예정인데, 바닷가 칼바람을 맞아가며 추위를 견뎌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무섭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서보형(라온스튜디오) 디자인/김미정

star bag

그의 두 아들에 폭행당했다는 K기자

배우 **백윤식**의 30세 연하 연인으로 알려진 K씨가 "백윤식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시청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방송사 기자인 K씨는 "24일 백윤식의 집에서 몇몇 문제를 논의하던 중 몸싸움 끝에 몸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착해빠졌어' 1위 오르자 종이 눈물

씨스타 **소유**(오른쪽)가 MBC 쇼 음악중심 1위 등극의 기쁨을 SNS로 전했다. '착해빠졌어'로 28일 생방송에서 솔로로는 처음으로 정상에 오른 소유는 이날 오후 "예상도 못 했는데 감사하다"란 내용의 소감과 종이로 눈물을 대신한 시늉의 사진을 팀 공식 트위터에 올렸다.

'쿠데타' LP 재발매 8888장 한정

빅뱅 **지드래곤**의 솔로 정규 2집 '쿠데타'가 LP 음반으로 재발매된다. 29일 소속사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선보일 이번 음반은 '원 오브 어 카인드' 의 해외 리미티드 이후 두 번째 LP로, 지드래곤이 좋아하는 숫자 '8'에 의미를 담아 8888장만 한정 제작된다.

주연작 '징크스' 11월 일본 전역 개봉

티아라 **효민**이 주연으로 나선 일본 영화 '징크스'가 11월 16일 현지 전역에서 개봉된다. 청춘 멜로물인 이 영화에서 효민은 한국인 유학생 지호로 출연했다. 다음달 17일 개막될 제26회 도쿄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청받아 레드 카펫을 밟는다.

안방팬 리모컨 바빠진다

'기황후' '상속자들' 등 신상 드라마 내달 줄줄이 선봬

따뜻한 가을여인 배우 수애가 자신이 모델인 한 의류 브랜드의 팬사인회에서 특유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다. 행사는 27일 진행됐는데, 수애는 가을 분위기가 물씬 배어나는 갈색 니트를 입고 청순하고 고혹적인 매력을 뽐냈다.

▶ 가을 남심 더 흔들리게 하지 마세요.

/조성준기자

다음달 안방극장이 '신상' 드라마들로 대폭 물갈이된다.

월화 시간대에 하지원(사진) 주연의 대작 사극 MBC '기황후'와 윤은혜·이동건 주연의 미니시리즈 KBS2 '미래의 선택'이 각각 다음달 21일과 14일 첫선을 보인다. 한류스타 최지우가 나선 SBS '수상한 가정부'는 이들 드라마보다 앞선 2일 8%대 시청률로 먼저 출발했다.

세 드라마 중에서는 단연 '기황후'의 우세가 점쳐진다. 원나라의 지배자로 거듭난 고려 여인 기황후의 일대기를 그릴 이 드라마는 50부작 블록버스터 사극이라는 점과 시청률의 여왕 하지원이 출연한다는 점에서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사료 속에서 악녀로 평가된 기황후를 영웅으로 묘사한 탓에 제작 단계부터 네티즌들의 반발을 크게 샀다. 그러나 기존 사극의 전례를 볼 때 역사 왜곡 논란이 시청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수목 시간대에선 지성·황정음 주연의 KBS2 '비밀'이 25일 5%대의 시청률로 초라하게 출발한 가운데, 신작 두 편의 합류로 새 판이 짜여진다. '히트작 제조기' 김은숙 작가의 차기작인 SBS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 상속자들'과 권상우·정려원이 출연하는 의학 드라마 MBC '메디컬탑팀'이 다음달 9일부터 동시에 방송된다.

이 시간대는 '상속자들'의 우세가 점쳐지는 중이다.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등 여러 드라마를 히트시킨 김 작가와 한류스타 이민호를 비롯해 박신혜·김우빈·소녀시대 크리스탈 등 젊은 톱스타들이 의기투합해 방영 전부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KBS2 월화극 '굿 닥터'가 시청률 20%를 돌파함으로써 '의학 드라마는 흥행에 불패한다'는 방송가의 속설을 다시 확인시켜준 바 있어 '메디컬탑팀'의 선전도 기대되고 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HNT 하나투어리스트
마감임박
BIG
Special Day! 매일매일 놀라운 가격
SALE
중국/대만여행
천년의 중국, 백년의 중국!
북경 ★ 만리장성/마사지 4일 27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황산 ★ 밀링여행 4일/5일 69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상해/항주/주가각 4일 26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장사/장가계/원가계 4일/5일/6일 54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대만(야류,온천,화련) 4일 64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동남아여행
놀라움과 모험이 가득한 세상!
방콕/파타야 4일/5일/6일 29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보라카이 4일/5일 32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푸껫 휴양지의 여왕 5일/6일 29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세부 낭만의 섬 4일/5일/6일 29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캄보디아(앙코르왓) 4일/5일 39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일본여행
알뜰만족 실속 일본여행!
오사카 ★ 고베야경 3일/4일 44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도쿄/시즈오카(하코네) 3일/4일 39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규슈 온천여행 3일 42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대마도 부산출발 2일/3일 14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북해도 3일/4일 59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예약문의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77-1212
1600-6963
www.hanatourist

<so young>
소영족, 수입차 구경꾼서 주인님으로

올 상반기 판매량의 44.5% 2030 연령층이 구입해 눈길

1000만원 내린 닛산 G25 등 국산차와 가격 차이 줄이고 스포티한 BMW 1시리즈 등 튀는 디자인 개성충족 어필

인피니티 G25

닛산 쥬크

BMW 1시리즈

수입차를 구경만 했던 2030세대가 최근 실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총 1만9742대의 수입차를 구매했고 이는 전체 수입차 개인 구매 고객 중 44.5%의 비중을 차지한다. 2대 가운데 1대는 젊은이가 산다는 얘기다.

주요 수입차 브랜드의 행보를 보면 이러한 실적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닛산이 대표적이다.

닛산의 럭셔리 브랜드 인피니티의 대표 스포츠 세단 'G25'는 3770만원까지 내려갔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4000만원 중반대였던 가격이 1000만원 가까이 내린 셈이다.

이 차가 럭셔리 세단의 엔트리 모델임을 감안하면 파격에 가깝다. BMW 320d, 아우디 A4, 벤츠 C200, 렉서스 IS250 등 동급 경쟁 모델의 가격은 여전히 4000만원대다.

'G25 스마트'는 지난 6월 사전 계약 실시 이후 10일 만에 100건의 계약이 성사됐고 또 7월 판매를 시작한 이후 두 달 동안 평균 2~3배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임에도 14년 연속 워즈 오토 10대 엔진으로 선정될 만큼 성능을 인정받은 VQ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221마력, 최대 토크 25.8kg·m의 동급 차량 대비 최고의 성능을 내뿜는 게 인기 비결이다.

더불어 한국닛산은 다음달 14일 스포티 CUV '쥬크'를 판매한다.

쥬크는 SUV의 강인함과 스포츠카의 역동성이 결합된 모델로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24.5kg·m의 4기통 1.6ℓ 직분사 터보 엔진을 탑재했다. 덩치에 비해 힘을 내면서 연비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격은 2700만~2900만원으로 국산 소형 SUV와 견줘봐도 밀리지 않는다.

BMW코리아는 M스포츠패키지가 적용된 1시리즈 에디션을 최근 선보였다.

이 모델은 기존 1시리즈에 스포티한 디자인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18인치 M 경합금 더블 스포크 휠, M 스포츠 서스펜션, M 에어로다이내믹스 패키지, M 스포츠 브레이크,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등 내·외관 곳곳에 변화를 줬다.

가격은 118d M 스포츠 에디션이 3930만원, 120d M 스포츠 에디션은 4670만원으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개성을 중요시하는 젊은층에 효과적으로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공식 출시한 1시리즈는 올 8월까지 이미 1289대가 팔렸다.

벤츠 역시 최근 소형 해치백 모델 A클래스를 3400만원대에 내놓고 '영'한 고객을 유혹 중이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계기판 위치 '오차없는 감동'

드라이빙 스토리 | 혼다 뉴 시빅

시빅은 혼다를 대표하는 준중형 세단이다. 현대차에 아반떼가 있듯이 말이다.

그렇기에 시빅은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아무리 소형화 추세라고는 하지만 수입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최소 중형급 이상이다.

게다가 실제 판매량을 봐도 배기량 2000~3000cc 모델이 가장 많다.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가 아니라면 준중형이나 소형 수입차는 국내에서 통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 지식은 일단 자제하고 시빅을 들여다 보자.

스포티한 외관이 눈길을 끈다. 물론 럭셔리카 수준의 화려함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준수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균형과 안정성을 갖춘 디자인이다.

실내 디자인은 약간 과장하면 '감격' 그 자체다.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7인치 올인원 내비게이션을 포함해 주요 조작 버튼이 운전석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 대다수 차량은 운전자 시선과 관계없이 정중앙을 바라보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작은 배려지만 실제 운전을 해보면 눈과 목이 편하다는 느낌이 든다. 대략 20~30도 틀어져 있지만 0.01초 차이로 사고가 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을 생각하면 의미가 있다.

스티어링 휠 안쪽에 각종 계기판이 붙어있는 여타 승용차와 달리 속도계와 연료계 등이 운전자의 시선 높이, 즉 앞 유리창 하단에 위치한다. 이 역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계기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를 배려한다.

뉴 시빅은 최고 출력 142마력, 최대 토크 17.7kg·m의 힘을 내는 1.8ℓ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다. 제원상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몰아보면 의외로 힘이 넘친다. 연비도 13km/ℓ대로 기대 이상이다.

준중형임에도 뒷좌석 공간이 여유롭고 트렁크도 골프백 4개는 거뜬히 들어갈 만큼 넉넉하다. 가격은 2590만원부터다.

앞서 언급한 배경 지식과 이 투의 메트와 시승 느낌을 함께 고려했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박상훈기자

예술과 만난 차의 속살 기아차는 27~29일 서울 삼청동 거나아트센터에서 예술을 통해 기아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기아 서프라이즈 위크엔드' 행사를 개최했다. 국내 설치미술가이자 그래픽 아티스트 '하리'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기아차 제공

현대·기아차 6개 차종 중국서 만족도 1위

정비만족도 공동 2위에

현대·기아차가 북미와 함께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에서 1등 품질을 인정받았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중국질량협회가 발표한 '2013 고객품질만족도 조사(CACSI)'에서 '랑동(한국명 아반떼XD·사진)' 등 6개 차종이 1위에 올랐다.

중국 내 42개 메이커 136개 차종과 경쟁한 결과 베이징현대 엘란트라(아반떼XD), 랑동(아반떼MD), 싼타페(신형)와 둥펑위에다기아 K2(프라이드), K3, 스포티지(구형) 등이 1위를 차지했다.

현대·기아차는 정비 만족도에서 공동 2위에 올랐고 판매 만족도에서는 각각 3위와 5위에 등극했다.

중국질량협회는 중국 정부 산하 기관으로 중국 산업의 전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 공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박상훈기자

한국GM AS만족도 '최고'

한국GM은 자동차 전문 리서치업체인 '마케팅 인사이트'가 최근 실시한 '자동차의 품질 및 고객만족 조사'에서 2년 연속 애프터서비스(AS) 만족도 및 품질 스트레스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GM은 AS 만족도 부문 응답자 4만4294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총점 1000점 중 819점을 받아 국산차의 평균 점수인 789점과 수입차의 평균 점수인 772점을 크게 웃돌았다.

총 7811명이 응답한 품질 스트레스 부문에서도 한국GM은 3.09건으로 품질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브랜드로 기록됐다.

다음달 2~6일 안성시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지난해 가을 70만 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하며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라는 평을 받았던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3년 만에 세계민속축전이라는 이름을 벗고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랜드에서 펼쳐진다. 남사당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며 유네스코 공식 기구인 세계민속축전기구(CIOFF)의 공식 축제로 인정받기도 했던 가장 한국적이며 세계적인 축제를 즐겨보자.

올해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축제를 찾는 모든 이들이 남사당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신명과 흥이 넘치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무대로 꾸며진다.

덩~실 어깨춤 추며 세상시름 훌~훌

유네스코도 반한 최초의 女 꼭두쇠 기리는 축제
길놀이·각국 민속밴드 등 무료관람 '흥겨운 손짓'

◆가을을 가득 채우는 신명과 난장

축제는 지난 2001년 남사당패의 여성 최초 꼭두쇠였던 '바우덕이'를 기리기 위해 시작된 만큼 올해도 안성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공연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본격적인 축제를 시작하기 전인 10월 1일 오후 바우덕이 추모제와 축제의 최고 볼거리인 '길놀이'가 안성 도심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2013년식으로 새롭게 느껴보는 의미에서 '신명의 난장, 얼쑤 한판 놀아보세'라는 주제로 축제 기간 내내 바우덕이 축제가 태동했던 때로 돌아가 과거를 현재에 재현해낸다.

또 기존 CIOFF에서 지향하던 민속축 외에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의 민속밴드, 기예단 등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을 통한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매일 밤 달라지는 야간 공연 역시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손색이 없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

올해 축제는 기존 축제와 달리 무료 입장으로 진행되며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 기회도 대폭 확대됐다. 성인은 물론 학생,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이 다수 마련됐고 시민 예술무대와 시민 장기자랑 무대도 운영된다. 또 주전부리 체험·양반미을 체험·안성맞춤시장 쇼핑 등 다양한 체험 코너가 진행되며 프린지 무대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골라 엠디스크 대회, 막춤 클럽, 학생 스쿨뮤직 페스티벌, 대학 동아리 경연대회, 백일장 등이 열린다.

안성맞춤의 옛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성 옛 장터도 바우덕이가 활동하던 시기인 1860년대 그대로 재현돼 당시의 장터에서 남사당과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누룩·유기 철물점 등 전통 수공예품 제작 시연과 전시·판매도 이뤄진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4D돔동영상관·주관측실·보조관측실이 있는 천문과학관도 마련됐으며 안성맞춤 400년 전통 장인의 정신을 만나볼 수 있는 공예관도 관람객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방문객들이 즐거운 축제

안성시는 축제 기간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평시장까지 연장 운행한다. 안성시는 공설운동장과 행사장 주변 곳곳에 셔틀버스 승차장을 설치하고 축제장 정문과 도로변에 임시 및 가변 주차장도 운영해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민에게 실리가 되는 축제를 표방하며 지난해 53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농·특산물 판매관 부스를 올해에도 그대로 유지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물품을 구입한 관람객을 위해 택배와 축제장 내 배송 등 구매 관련 서비스도 강화된다. /황제응기자

- 날짜 10월 2~6일
- 장소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 문의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위원회 031)678-5966

양양 송이·정선 아리랑·민둥산 억새…강원도는 축제중

다채롭고 풍성한 가을 축제가 강원도 곳곳에서 개최된다.

우선 '2013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던 양양송이축제와 정선아리랑제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10월 6일까지 열리는 양양송이축제는 이미 많은 관광객의 예약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양양시는 수도권 방문객들을 위해 서울과 축제장까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또 아리랑의 고향인 정선에서는 10월 5일까지 정선아리랑제와 함께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이 개최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위대한 문화유산의 뿌리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된다. 아울러 가을 정취의 최고봉인 억새를 볼 수 있는 정선 민둥산(사진)에서 열리는 억새축제가 11월 3일까지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특히 지난 28일 시작된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은 춤, 사랑, 소통을 주제로 도심 속 카니발 축제를 표방하며 도심을 축제 분위기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은 강원도 4대 호수인 의암호~춘천호~파로호~소양호를 카누로 체험하는 '강원 4대 호수 종주 카누투어링 대회'가 개최된다.

이와 함께 강원도 선정 대표 축제인 강릉커피축제가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강릉에서 열리며 같은 기간 주문진에서는 오징어축제가 열려 오징어 맨손 잡기, 오징어 썰기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가 개최된다.

산악 페스티벌과 거리 퍼레이드로 개최되는 속초 설악문화제(10월 5~6, 11~13일)도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으며 명태의 고장 고성에서는 다음달 24일부터 27일까지 '고성 명태는 행운이다'라는 주제로 명태축제가 열린다.

/황제응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배상문 40개월만에 우승샷

신한동해 9언더 정상
KPGA 통산8승 달성
배희경 KLPGA 첫승

배상문(27·캘러웨이)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제29회 신한동해오픈(총 상금 10억원)에서 우승했다.

배상문은 29일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어반 링크스 코스(파72·741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로 1타를 잃었지만 합계 9언더파 279타로 정상을 차지하며 상금 2억원을 챙겼다.

지난 5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배상문은 이로써 올 시즌 2승째를 거뒀다.

국내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는 2010년 5월 SK텔레콤오픈 이후 3년4개월 만으로 KPGA 통산 8승째를 기록했다.

류현우(32)는 6언더파 282타로 준우승하고 상금 1억원을 더해 올 시즌 상금 부문 선두(4억281만원)를 지켰다.

같은 날 강원 평창의 휘닉스파크 골프장(파72·6406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KDB대우증권 클래식(총 상금 6억원·우승 상금 1억2000만원)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선 배희경(21·호반건설)이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로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골프 여제 박인비(25·KB금융그룹)는 2언더파 214타로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과 공동 10위에 자리했다.

한편 이나리(25)도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이나리는 29일 미야기현 리후 골프장(파72·6498야드)에서 열린 미야기 TV컵 던롭 레이디스오픈(총 상금 7000만 엔)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합계 5언더파 211타로 우승하고 상금 1260만 엔(약 1억3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 밖에 박성준(27)과 양용은(41·KB금융그룹)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아시아 퍼시픽 파나소닉오픈(총 상금 1억5000만 엔)에서 나란히 2위(8언더파 276타)와 3위(7언더파 277타)에 올랐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배상문이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KPGA 제공

추, 이번엔 '꿈의 300출루'

류현진 신인왕 3순위 꼽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기록의 사나이'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20홈런-20도루-100득점-100볼넷에 이어 한 시즌 '300출루'까지 달성했다.

추신수는 29일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안타와 몸에 맞은 볼, 볼넷으로 세 타석 연속으로 1루를 밟았다.

전날까지 297출루를 기록했던 추신수는 이날 3차례를 더하며 300출루란 기록까지 거머쥐었다.

역대 메이저리그에서 20홈런-20도루-100득점-100볼넷과 300출루 기록을 모두 달성하기는 1970년 칼 야스트렘스키 이후 그가 12번째다.

팀은 3-8로 패했다.

한편 30일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15승에 도전하는 류현진(26·LA 다저스)은 내셔널리그 신인왕 3순위로 꼽혔다.

미 폭스스포츠 칼럼니스트 켄 로즌솔은 이날 인터넷판에 게재한 글에서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우완 투수 호세 페르난데스(21·마이애미 말린스)와 류현진의 팀 동료 야시엘 푸이그(23)를 지목했다.

뉴욕타임스는 페르난데스와 푸이그, 셸비 밀러(2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신인왕 후보 1~3위에 올렸다.

/조성준기자

추신수가 1회 타석에서 피츠버그 투수 찰리 모튼의 공에 맞고 있다 /AP 뉴시스

손흥민(오른쪽)이 하노버96의 마르셀로와 공을 다투고 있다 /AP 뉴시스

손흥민 주전경쟁 한발짝 더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 박지성 발목부상 교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손흥민(21·바이엘 레버쿠젠)이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28일 독일 레버쿠젠의 베이아레나에서 열린 2013~2014 분데스리가 7라운드 하노버96과의 홈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36분 상대 코빅 수비라인을 허문 절묘한 스루패스로 동료 시드니 샘의 추가골을 도왔다.

이로써 손흥민은 올 시즌 세 번째이자 24일 빌레펠트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로비 크루즈를 따돌리고 팀 내 주전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서가기 시작했다.

구자철(24·볼프스부르크)은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원정경기에 아우크스부르크 시절처럼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장해 후반 36분까지 뛰었으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팀의 0-1 패배를 막지 못했다.

수비수 박주호(26·FSV 마인츠)는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열린 헤르타 베를린과의 원정경기에 왼쪽 풀백으로 나와 올 시즌 7차례의 공식 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는 강철 체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팀은 1-3으로 졌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선 김보경(24)이 55분간 공수를 활발히 오간 카디프시티가 6라운드 경기에서 풀럼을 2-1로 제압했다.

챔피언십(2부리그) 소속 볼턴 원더러스의 이청용(25)은 요빌전에 선발 출전해 54분간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다. 팀은 1-1로 비겼다.

한편 박지성(32·에인트호번)은 일크마르전에 선발 출전했으나 왼쪽 발목 부상으로 후반 26분 교체됐다.

/조성준기자 when@

프로축구 전적 29일

제주	1	0	전남
전북	0	0	수원

박병호 혼자 3홈런 7타점 'MVP 예약'

LG, 삼성 꺾고 반경기차 추격

홈런 랭킹 1위 넥센의 박병호가 홈런 3개를 몰아쳤다.

박병호는 29일 목동구장에서 벌어진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두산과의 경기에서 홈런 세 방을 치며 혼자 7타점을 올렸다.

시즌 36홈런을 기록한 박병호는 이 부문 2위 최정(28개·SK)을 8개 차이로 따돌려 홈런왕 2연패 굳히기에 들어갔다.

3위 넥센은 박병호의 원맨쇼에 힘입어 4위 두산을 11-6으로 대파했다. 이로써 넥센은 2위 LG와의 승차를 1게임으로 유지하며 선두 삼성에는 1.5게임 차로 따라붙었다.

1·2위가 맞붙은 잠실구장에서는 LG가 1위 삼성에 7-5로 역전승을 거둬 반 게임 차로 따라붙었다.

LG는 0-1로 뒤진 4회말 2사 만루에서 박용택이 2타점 중전안타를 날려 역전에 성공했다. 계속된 공격에서 LG는 오지환의 우선상 2루타에 이어 이병규(9번)도 2타점 적시타를 날려 5-1로 달아났다. 박용택은 5타수 3안타 2타점으로 공격을 주도했다.

광주구장에서는 15안타를 몰아친 한화가 11안타의 KIA를 14-10으로 물리쳤다.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NC-SK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박성훈기자

프로야구 전적 29일

■잠실

삼성	010	021	001	5
LG	000	502	00X	7

■목동

두산	001	110	021	5
넥센	203	001	500	11

■광주

한화	104	150	003	14
KIA	214	000	021	10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hat do you plan to do tomorrow? 계획 세우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Hey! We have a day off tomorrow!
B: 내일 뭐 할 계획이야?
A: 난 내일 어떤 것도 할 것 같지 않아.
B: We should do something fun! How about we go to the movies?
A: I'm so tired. I want to rest.

정답 What do you plan to do tomorrow? / I doubt that I'll do anything tomorrow.

생생영어팁

▶ up in the air
아직 결정된 바 없는

이 표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t's still up in the air.는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Nothing has been decided.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장소 전치사 on

▶ on은 장소를 나타낼 때 '~에'의 의미로 사용된다.

표면 위	on the desk 책상 위에 on the wall 벽에 on a bicycle 자전거 위에
거리 위	on Main Street 메인가에 on the street 길 위에
교통수단	on the bus/train/subway/airplane 버스/기차/지하철/비행기에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Put the book on the desk. 책을 책상 위에 두세요.
2. I'm on the bus. I can't talk.
   저 지금 버스 안이에요. 얘기 못해요.
3. The park is on Main Street. 공원은 메인 가에 있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Since employees often have to meet with clients with no prior notice, Park Interior Design enforces dress code ______ at all times.
(A) compliant (B) compliance
(C) compliantly (D) complies

02 The impressive floral display at the building entrance is ______ made up of blue flowers, with a few red ones artfully placed throughout.
(A) enough (B) exclusively
(C) primarily (D) everywhere

01. 직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고객을 만나야 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파크 인테리어 디자인 사는 항상 복장 규정 준수를 실시하고 있다.
해설 ... compliance를 써야 한다.
어휘 ... enforce ... 실시하다 dress code 복장 규정 at all times 항상 ... compliance ... comply ...
정답 (B) compliance

02. 건물 입구에 있는 인상적인 꽃 장식은 주로 파란 꽃으로 이루어져 있고, 빨간 꽃 몇 송이가 ...
해설 '주로 ~으로 이루어지다' ... (C) primarily를 쓴다.
어휘 ... artfully ... throughout ... exclusively ...
정답 (C) primarily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6. 의견 제시하기

의견과 이유 및 근거를 말할 때 쓰는 표현

예를 들어 말하기

For example, there are good facilities where people can have fun.
예를 들어, 사람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Children have to eat various fruits such as apples, bananas and pears.
아이들은 사과, 바나나, 배와 같은 다양한 과일들을 먹어야 합니다.

In my case, I watch TV alone in my own room and don't talk to my family.
제 경우에는, 제 방에서 혼자 TV를 보며 가족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의견 마무리하기

Therefore, it is a good idea to hire an experienced employee.
그러므로 경력자를 고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So, students can take classes without worrying about school tuition.
그래서 학생들은 학비 걱정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us, people can share ideas and information with their friends.